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37)(3/4/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27 장 최고의 선을 이루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인 자기애, 2-3 절

출 18:18 - 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사 41:13 -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사 61:1 - 주 여호와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2. 왜 너는 쓸데없고 헛된 일들로 고민하고 노심초사하며, 하지 않아도 될 염려들로 네 자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냐?(출 18:18; 미 4:9). 내가 기뻐하는 것을 굳게 붙잡아라. 그러면, 너는 그 어떤 손해도 입지 않게 될 것이다. 네 자신이 좀 더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네 뜻과 생각을 따라 이런저런 것들을 구하고, 이런저런 곳에 있기를 원한다면, 너는 결코 안식을 얻을 수도 없고 염려에서 해방될 수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에도 네 마음에 안 든 점이 있고, 그 어떤 곳에도 너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네게 도움이나 이익이 될 만한 외적인 것들을 많이 얻거나 쌓아 두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것들을 멸시하고, 네 마음에 완전히 뿌리를 뽑아 버리는 것이야말로, 너를 진정으로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돈과 부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명예욕이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욕망 같이, 세상과 함께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될 모든 것들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경건한 열심으로 불타오르는 영혼이 결여되어 있다면, 높은 지위나 신분은 별 소용이 없고(사 41:13), 네 마음이 참된 토대 위에 서 있지 않다면, 즉 네가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밖으로부터 온 평화는 오래가지 못한다. 너는 변할 수는 있겠지만, 더 나아질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지금까지는 용케도 이리저리 피하여서 평안과 안식을 지키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네가 피하였던 것, 아니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때에는 네가 누리고 있던 평안과 안식이 순식간에 박살이 나서, 그것들이 얼마나 빈약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과 해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것에 집착한다. 문제는 그 집착 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집착하는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는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독증은 중독된 그것에 내가 묶이고 통제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가 박탈된 상태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고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긴 어떤 것이 나의 자유를 박탈하고 집어삼킬 수 있음을 늘 유념해야 한다. 설사 우리가 어떤 것에 중독되고 매이는 단계까지 넘어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곁에 두고 관계하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근심되게 하며 평안과 안식을 빼앗아 가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적 금식이 필요하다. 영성훈련에서의 금식은 음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다 적용된다. 우리는 때를 좇아 정기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영적 금식을 실천함으로 우리 영을 정결하게 하고 단련해야 한다. 그 단련은 우리를 영적으로 승리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사 61 장에 기록된 메시아의 역사는 자유와 해방의 역사이다. 사 61:1 -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비롯해서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묶인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신 분이시다. 그 자유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휘감고 있던 모든 영적 사슬을 끊어 버렸다. 롬 8:1-2 -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주님의 십자가는 죄에서 비롯된 우리의 왜곡된 자기애, 이기적 자기중심성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나에게서 떠나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지금 내가 나도 모르게 불필요하게 집착하고 매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에서 해방되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공통점 중의 하나는 자신이 집착하고 붙잡고 매여 있던 것을 과감히 떠났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고 권능을 체험한 후에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주님을 따랐다. 눅 19 장에서 삭개오는 재물에 강하게 집착하던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나 회심한 다음에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말하였다(눅 19:8).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은 그가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을 말해 준다.

주님을 만나 영적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와 근심과 복잡한 생각으로부터도 해방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을 조심할 것을 당부한다. 예수님은 눅 12:25 에서,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하셨다. 아울러 눅 12:11-12 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눅 12:11-12 - 11.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12.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중에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해야 할 말조차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신 말씀이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 어떤 상황에 직면하는 그 때 해야 할 말을 친히 가르치시고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씀 역시 불필요한 걱정을 미리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한다. 우리 마음의 번민과 걱정과 근심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바라보고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해결될 수 있다. 오늘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나를 얽매고 구속하는 모든 것들로 자유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영적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2. 질병, 전쟁, 기근, 테러로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해방시켜 주옵소서.
3. 인생의 고난 가운데 힘들어 하는 교우들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